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5.4.22.(화) 석간

배포

2025.4.21.(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책임자
담당자팀 장 설재훈 (02-3145-7600)
조사역 박기택 (02-3145-7604)

'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 운용 현황

- ◆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하였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84.1조원) 이후 최저치 기록
- (발행규모)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
 - (투자손익)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23년 3.4조원 → '24년 △2.4조원)

I. 파생결합증권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 추가연계(ELS, ELB) 및 기타연계(DLS, DLB)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이하 동일)

1

개 황

-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한 73.6조원, 상환액은 △1.2조원 감소한 82.7조원으로 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
- 이에 따라, '24년 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2.7조원 감소한 81.6조원으로 '14년(84.1조원) 이후 최저치 기록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2년			'23년(A)			'24년(B)			증감(B-A)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57.7	40.2	70.7	62.8	64.3	66.9	55.2	67.4	51.7	△7.6	+3.1	△15.2
DLS	16.5	11.8	31.5	16.1	19.6	27.4	18.4	15.3	29.9	+2.3	△4.3	+2.5
전체	74.2	52.0	102.2	78.9	83.9	94.3	73.6	82.7	81.6	△5.3	△1.2	△12.7

* ELS는 ELS·ELB를 통칭, DLS는 DLS·DLB를 통칭(이하 동일)

가 ELS 발행

- **(발행액)** '24년 중 ELS 발행액은 5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홍콩 H지수 사태로 인한 ELS 수요 위축 지속과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
- 원금지급형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23년 51.2% → '24년 70.9%) 하였고, 공모발행 비중은 소폭 감소('23년 94.2%→'24년 91.6%)

ELS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23년			'24년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발 행 액	57.7 (100.0)	53.9 (93.4)	3.8 (6.6)	62.8 (100.0)	59.2 (94.2)	3.6 (5.8)	55.2 (100.0)	50.6 (91.6)	4.6 (8.4)
원금지급형	29.6 (51.2)	28.9 (50.1)	0.6 (1.1)	32.1 (51.2)	31.4 (50.0)	0.7 (1.2)	39.1 (70.9)	37.3 (67.5)	1.9 (3.4)
원금비보장형	28.2 (48.8)	25.0 (43.3)	3.2 (5.5)	30.7 (48.8)	27.8 (44.2)	2.9 (4.6)	16.1 (29.1)	13.3 (24.1)	2.8 (5.0)

- **(기초자산 유형별)** 지수형 ELS 발행액은 19.6조원이며 그 비중은 전년(51.3%) 대비 △15.8%p 하락한 35.5%인 반면, 종목형 ELS 비중은 57.3%로 전년(40.8%) 대비 16.5%p 증가

ELS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액

(단위: 조원, %)

연도	발행액	ELS 유형					
		지수형		종목형		혼합형	
'22년	57.7 (100.0)	31.0 (53.7)		21.5 (37.3)		5.2 (9.0)	
'23년	62.8 (100.0)	32.2 (51.3)		25.7 (40.8)		5.0 (7.9)	
'24년	55.2 (100.0)	19.6 (35.5)		31.6 (57.3)		4.0 (7.2)	

- **(기초자산 개수별)** 기초자산 3개인 ELS 발행 비중은 22.8%로 전년(39.2%) 대비 $\Delta 16.4\%p$ 감소하였으나, 기초자산 1개인 ELS 발행 비중은 58.2%로 전년(44.2%) 대비 $14.0\%p$ 증가

ELS 기초자산 개수별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발행액	기초자산 개수			
		1개	2개	3개	4개
'22년	57.7 (100.0)	24.7 (42.7)	12.0 (20.8)	21.1 (36.5)	0.0 (0.0)
'23년	62.8 (100.0)	27.8 (44.2)	10.4 (16.5)	24.6 (39.2)	0.0 (0.0)
'24년	55.2 (100.0)	32.1 (58.2)	10.1 (18.4)	12.6 (22.8)	0.3 (0.6)

-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 규모는 KOSPI200(18.6조원), S&P500(13.0조원), EuroStoxx50(11.8조원), Nikkei225(3.5조원), HSCEI(1.0조원) 順
- H지수 사태의 파급효과로 S&P500 등 해외지수 비중이 감소하고 KOSPI200의 비중이 크게 증가('23년 49.1% → '24년 78.8%)

지수·혼합형 ELS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ELS 계 (지수·혼합형)	주요 기초자산*				
		S&P500	EuroStoxx50	KOSPI200	Nikkei225	HSCEI
'22년	36.2 (100.0)	25.3 (69.8)	24.8 (68.6)	21.7 (59.8)	4.4 (12.1)	5.4 (15.0)
'23년	37.2 (100.0)	28.0 (75.2)	25.5 (68.7)	18.3 (49.1)	11.2 (30.1)	5.4 (14.5)
'24년	23.6 (100.0)	13.0 (55.0)	11.8 (49.9)	18.6 (78.8)	3.5 (14.6)	1.0 (4.1)

* 2개 이상의 기초자산을 편입한 ELS의 경우 각각의 기초자산에 포함(중복계산)

- **(상품구조별)** Knock-In형 ELS 발행액은 6.6조원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5.9조원 감소하였으며, 비중(11.9%)은 $\Delta 8.0\%p$ 감소
- 이는 '24년 중 Knock-In 옵션이 포함된 원금비보장형 ELS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영향

상품구조별 ELS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발행액	Knock-In형				No Knock-In형
		합계		低 Knock-In형*		
'22년	57.7 (100.0)	12.4 (21.5)		11.7 (94.4)	45.3 (78.5)	
'23년	62.8 (100.0)	12.5 (19.9)		12.4 (99.1)	50.3 (80.1)	
'24년	55.2 (100.0)	6.6 (11.9)		6.3 (96.1)	48.6 (88.1)	

* Knock-In 배리어가 50% 이하인 상품으로 배리어가 50%인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

- **(인수현황)** '24년 중 발행된 ELS는 퇴직연금(25.3조원, 45.9%), 일반공모(13.2조원, 23.9%), 은행신탁(12.0조원, 21.8%) 順으로 인수
- 은행신탁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Delta 15.9\%p \downarrow$)한 반면, 일반공모 비중은 증가($8.4\%p \uparrow$)

ELS 발행 인수자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총액	인수자				
		은행신탁	일반공모	자산운용	퇴직연금	기타*
'22년	57.7 (100.0)	20.2 (34.9)	9.8 (17.0)	2.5 (4.3)	23.9 (41.4)	1.3 (2.3)
'23년	62.8 (100.0)	23.7 (37.7)	9.7 (15.5)	2.2 (3.5)	25.8 (41.1)	1.4 (2.3)
'24년	55.2 (100.0)	12.0 (21.8)	13.2 (23.9)	1.1 (2.1)	25.3 (45.9)	3.5 (6.3)

* 기타 : 은행 및 증권사의 고유분, 연기금, 일반기업, 증권신탁·보험·기타 사모 등

나

ELS 상환

- **(상환액)** '24년 중 ELS 전체 상환액은 67.4조원으로 전년(64.3조원) 대비 3.1조원 증가
- H지수 기초 ELS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만기상환 규모는 전년 대비 16.0조원 증가하였으며,
 - 상대적으로 조기상환 비중이 큰 지수형 ELS의 발행 감소로 인해 조기상환 규모는 전년 대비 $\Delta 12.9$ 조원 감소

ELS 상환*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상환 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22년	40.2	(100.0)	19.1	(47.4)	21.2	(52.6)
'23년	64.3	(100.0)	37.3	(58.0)	27.0	(42.0)
'24년	67.4	(100.0)	24.4	(36.2)	43.0	(63.8)

*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다 ELS 잔액

- **(발행잔액)** '24년 말 기준 ELS 잔액은 51.7조원으로 전년 말(66.9조원) 대비 △15.2조원 감소(△22.7%↓)
- 은행 판매 의존도가 높은 원금비보장형의 비중이 크게 감소(△34.1%p↓)

ELS 유형별 발행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2년말			'23년말			'24년말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발행잔액	70.7 (100.0)	64.5 (91.1)	6.3 (8.9)	66.9 (100.0)	62.1 (92.7)	4.9 (7.3)	51.7 (100.0)	48.4 (93.6)	3.3 (6.4)
원금지급형	27.9 (39.5)	27.5 (38.9)	0.4 (0.6)	31.2 (46.7)	30.7 (45.8)	0.6 (0.9)	41.7 (80.8)	40.1 (77.7)	1.6 (3.1)
원금비보장형	42.8 (60.5)	37.0 (52.2)	5.8 (8.3)	35.7 (53.3)	31.4 (46.9)	4.3 (6.5)	9.9 (19.2)	8.3 (16.0)	1.7 (3.2)

3 DLS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가 DLS 발행

- **(발행액)** '24년 중 DLS 발행액은 18.4조원으로 전년(16.1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원금지급형 발행액은 1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1.7%p↓)

DLS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23년			'24년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발 행 액	16.5 (100.0)	9.2 (56.0)	7.3 (44.0)	16.1 (100.0)	9.1 (56.5)	7.0 (43.5)	18.4 (100.0)	7.2 (39.2)	11.2 (60.8)
원금지급형	13.2 (80.1)	9.2 (56.0)	4.0 (24.0)	12.8 (79.8)	9.1 (56.5)	3.7 (23.3)	14.4 (78.1)	7.2 (39.2)	7.2 (38.9)
원금비보장형	3.3 (19.9)	0.0 (0.0)	3.3 (19.9)	3.2 (20.2)	0.0 (0.0)	3.2 (20.2)	4.0 (21.9)	0.0 (0.0)	4.0 (21.9)

- **(주요 기초자산별)**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13.3조원), 신용(2.7조원), 환율(1.5조원), 원자재(0.1조원) 順

기초자산별 DLS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총액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기타*
'22년	16.5 (100.0)	12.6 (76.4)	3.5 (21.1)	0.3 (2.1)	0.0 (0.1)	0.1 (0.4)
'23년	16.1 (100.0)	12.0 (74.5)	2.8 (17.6)	0.2 (1.3)	0.6 (3.9)	0.4 (2.7)
'24년	18.4 (100.0)	13.3 (72.3)	2.7 (14.4)	0.1 (0.5)	1.5 (8.1)	0.9 (4.7)

* 주식 및 성격이 다른 기초자산의 혼합형(KOSPI200, 원자재 동시편입) 등

나 DLS 상황

- **(상환액)** '24년 중 DLS 상환액은 15.3조원으로 전년(19.6조원) 대비 △4.3조원 감소(21.9% ↓)

DLS 유형별 상환* 현황

(단위: 조원, %)

합계	'22년		합계	'23년		합계	'24년	
	조기상환	만기상환		조기상환	만기상환		조기상환	만기상환
11.8 (100.0)	2.7 (22.7)	9.1 (77.3)	19.6 (100.0)	2.6 (13.4)	17.0 (86.6)	15.3 (100.0)	2.2 (14.6)	13.0 (85.4)

*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다

DLS 잔액

- (발행잔액) '24년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29.9조원으로 전년 (27.4조원) 대비 2.5조원 증가하였으며, 원금지급형은 2.0조원 증가 하였으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DLS 유형별 발행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2년말			'23년말			'24년말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DLS 잔액	31.5 (100.0)	7.7 (24.6)	23.7 (75.4)	27.4 (100.0)	4.8 (17.6)	22.6 (82.4)	29.9 (100.0)	5.1 (17.1)	24.8 (82.9)
원금지급형	25.4 (80.8)	7.7 (24.6)	17.7 (56.3)	21.7 (79.4)	4.8 (17.5)	16.9 (61.9)	23.7 (79.3)	5.1 (17.0)	18.6 (62.2)
원금비보장형	6.0 (19.2)	0.0 (0.0)	6.0 (19.1)	5.6 (20.6)	0.0 (0.0)	5.6 (20.5)	6.2 (20.7)	0.0 (0.0)	6.2 (20.7)

Ⅱ.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 현황

1

헤지방식

- '24년 말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81.6조원) 중 자체헤지 규모는 55.2조원으로 전년 말(59.4조원) 대비 △4.2조원 감소하였으나, 자체 헤지 비중(67.7%)은 소폭 증가(4.7%p ↑)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 방식

(단위: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잔 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잔 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전체	94.3 (100.0)	59.4 (63.0)	34.9 (37.0)	81.6 (100.0)	55.2 (67.7)	26.4 (32.3)
ELS	66.9 (100.0)	48.6 (72.5)	18.4 (27.5)	51.7 (100.0)	42.7 (82.7)	8.9 (17.3)
DLS	27.4 (100.0)	10.8 (39.6)	16.5 (60.4)	29.9 (100.0)	12.5 (41.7)	17.4 (58.3)

-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외국계 금융회사가 20.0조원으로 대부분(75.9%)이며 DLS가 ELS보다 외국계 의존도가 높은 편

파생결합증권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

(단위: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잔 액	외국계(비중)	국내사(비중)	잔 액	외국계(비중)	국내사(비중)
전체	34.9 (100.0)	27.0 (77.4)	7.9 (22.6)	26.4 (100.0)	20.0 (75.9)	6.4 (24.1)
ELS	18.4 (100.0)	13.5 (73.5)	4.9 (26.5)	8.9 (100.0)	5.7 (64.4)	3.2 (35.6)
DLS	16.5 (100.0)	13.5 (81.7)	3.0 (18.3)	17.5 (100.0)	14.3 (81.8)	3.2 (18.2)

2

운용자산 내역

- '24년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자산(헤지자산)의 평가 금액은 81.7조원으로, 부채평가액*(81.4조원)을 0.3조원 초과

*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의 월말 평가잔액 등

- 헤지자산은 채권이 75.2조원(92.1%)으로 가장 많으며, 예금·예치금 7.0조원(8.5%), 현금 1.2조원(1.4%) 順
- 채권은 대부분 국내채권(89.9%, 67.6조원)이며, 신용등급별로는 국공채, AA(장기) 이상 또는 A1등급(단기) 등 우량등급 채권이 대부분(83.3%)

※ 전체 헤지자산 대비 여전채 비율은 4.8% 수준으로, '24년 여전채 한도(12%) 하회

Ⅲ.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 '24년 중 실제 상환이 이뤄진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 및 투자수익률은 ELS와 DLS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24년 중 H지수 기초 ELS의 만기도래 집중으로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ELS 투자손익률은 전년 대비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

파생결합증권 투자손익

(단위: 년, 조원, %)

구분		평균 투자기간*	원 금 (A)**	투자손익 (B)	투자손익률 (B/A)	연환산
ELS	'23년	0.8	64.3	3.4	5.3	6.2
	'24년	1.4	67.4	Δ2.4	Δ3.6	Δ2.6
DLS	'23년	0.8	19.6	0.6	2.8	3.5
	'24년	0.6	15.3	0.2	1.5	2.5

* 회차별 투자기간을 상환액면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투자기간

** 중도해지되어 조기상환·만기상환되지 않은 종목은 투자손익 산정에서 제외

- **(발행사)** '24년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5,475억원으로 전년(4,395억원) 대비 1,080억원 증가

IV. Knock-In 현황

- '24년 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0.3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81.6조원)의 0.4% 수준(전액 ELS에서 발생)
- '24년 중 H지수 기초 ELS가 대부분 조기·만기 상환됨에 따라, '24년 말 Knock-In 발생 잔액은 '23.12월 말(6.6조원) 대비 4.5%에 불과

Knock-In 발생한 상품 잔액 및 만기도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Knock-In 잔액	만기 도래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파생결합증권 전체		2,966	309	2,409	248	-
ELS		2,966	309	2,409	248	-
Knock-In 발생기간	~'23년	527	285	241	-	-
	'24년	2,439	24	2,167	248	-
DLS		-	-	-	-	-

V. 향후 대응계획

① 투자자 손실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유의사항 안내

- '25년 들어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므로 ELS 발행 동향 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

* [붙임 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아울러, 최근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파생결합사채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경각심 제고

* [붙임 3] 파생결합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② 증권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 최근 주요 해외지수의 급락으로 ELS 마진콜 발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중요성이 증대
- 이에, 마진콜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③ 파생결합증권·사채 건전성 관리 제도 개선

-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제한*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차익 해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증권회사가 발행대금을 고유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파생결합사채의 과도한 발행 확대를 방지

* 내부대여 한도를 '26년 20% → '27년 10%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가산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 예정('26년 시행)

※ [붙임 1] 파생결합증권(ELS, DLS) 개요

[붙임 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붙임 3] 파생결합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붙임 1 파생결합증권(ELS, DL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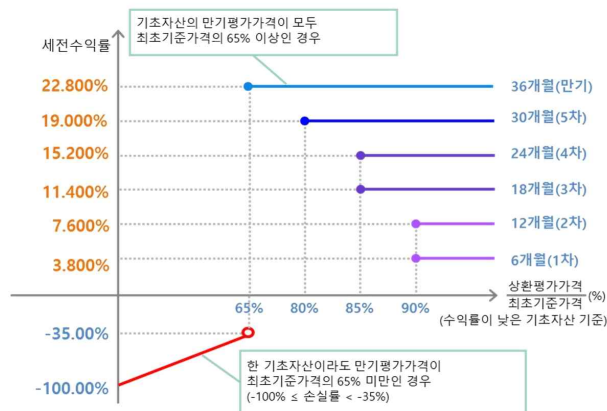
- ELS(Equity Linked Securities)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파생결합증권, ELB(Equity Linked Bond)와 DLB(Derivative Linked Bond)는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이 자본시장법상 정확한 명칭이나, 편의상 모두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

□ ELS·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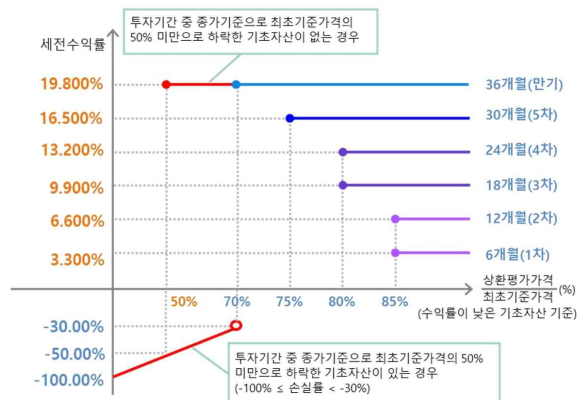
- 투자자는 주가지수 또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음

※ 기초자산이 3개인 Step-down ELS의 수익구조(예시)

< 노낙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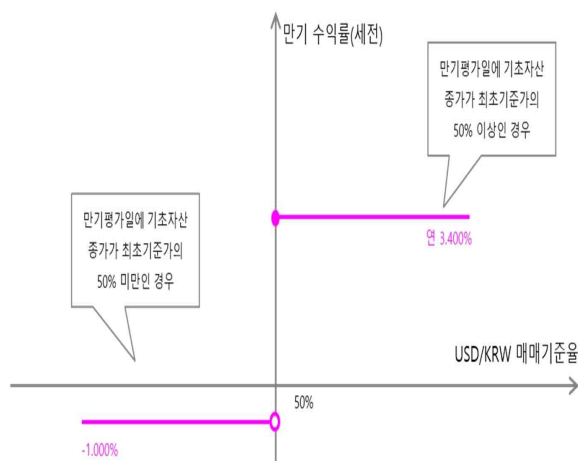
< 낙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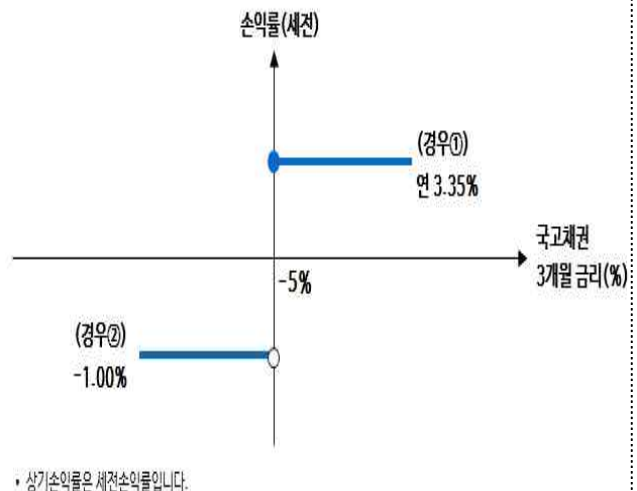
□ DLS·DLB는 기초자산으로 주가가 아닌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활용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의 수익구조(예시)

< 환율 >



< 금리 >



붙임 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사의 파산 등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만큼 손익발생 조건, 기초자산의 가격추이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 기초자산 하락 등 변동성 확대 시 조기상환 지연, 낙인(Knock-In)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

-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발생 및 원금상환 조건이 많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

-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입니다.

⑥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중도상환 신청 시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조기상환은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⑧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 한정

-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ELF도 예금이 아님

-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지므로 예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⑩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

-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므로 반드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해야 합니다.

👉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①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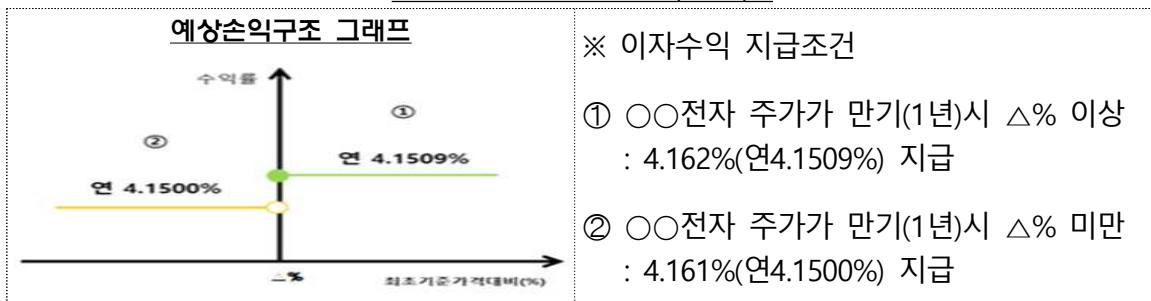
- 파생결합사채는 원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음

②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

-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파생결합사채 상품(예시)>



③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

-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중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활용

④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 발생

-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되어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품입니다.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합니다.